

# 호시노재심 뉴스 185 후 2012년 10월 15일 발행



## 이의심의 보충서를 제출 (9월 28일) 11·23 호시노재심 전국집회에



전증거공개·재심 시작을 요구하고, 9·28 도쿄(東京) 고등 법원 포위 데모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 모든 증거를 개시해 재심을 개시하라

## "호시노를 돌려달라!"는 고등재판소 포위데모



재심 변호단이 보충서 제출에 대해서 보고

오전 11시 재판소에 집합한 재심변호단은 이의신청 보충서를 도쿄고등재판소 제 12 형사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가 혼신의 결의를 담아 써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이의심의의 본격적인 개시입니다. 12시 "어떻게 해서든 호시노씨를 되찾자"고 결의한 100명이 히비야(日比谷)공원 카스미(霞)문에 집합했습니다. 제일 먼저 호시노 이키코(星野 暎子)씨가 "후미아키는 무죄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공격을 날아 타파하며 사는 지평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후미아키를 되찾기 위해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변호단장 국철 치바(千葉)동력차 노동조합 전국 노동조합 교류센터 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 부인민주클럽 전국협의회 재판원 제도는 필요없다 대운동의 타카야마 슌키치(高山 俊吉)변호사가 발언한 뒤에 고등재판소 포위데모에 출발했습니다. 데모는 도쿄고등재판소 도쿄고등검찰청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개시하라 재심을 개시하라"며 분노를 표시 했습니다.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앞의 "탈원전테트"와 지원을 주고 받고 원전 마피아인 경제산업성을 탄핵했습니다. 14시부터는 신바시(新橋)의 생애학습센터 "바룬"에서 "보충서 제출 보고 집회"를 열어 60명이 참가했습니다.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변호단장 이와이 마코토(岩井 信)주임 변호인 후지타 조지(藤田 城治)변호사가 막제출한 보충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충서는 전 71 페이지로 재심기각 결정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타파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인 카노 미츠오(狩野 満男)씨 후쿠시마(福島).되찾는모임 카나가와(神奈川)..되찾는모임 학생 부락해방동맹 전국연합회.스기나미(杉並).지부등이 연달아 발언을해 "모든 증거를 반드시 개시시켜 재심을 개시시키자"라며 호시노씨 해방의 결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공동대표인 토무라 유리(戸村 裕実)씨가 정리를 한 뒤 단결을 힘내자며 새로운 비약을 위한 단결을 굳게 다졌습니다.

### 11.4 노동자 집회로 부터 11.23 전국집회에

JR에서는 엉터리같은 외주화와 위장청부에 대해 국철 치바(千葉)동력차 노동조합이 10월 1일부터 24시간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저한 직장투쟁으로 차량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지를 가지고 싸우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단결을 바탕으로 JR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싸움은 국철분할.민영화로 25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쫓겨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타파하는 싸움이기도합니다. 정부의 오스프리 배비강행에 대해서도 오키나와(沖縄)전체적인 싸움을 선두로 전국에서 타협하지 않는 싸움이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재가동과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수상관저 앞에서 필사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싸움들은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시노의 싸움도 노동자의 단결을 중심으로 한 이싸움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면 모든 증거개시.재심개시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싸우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모이는 11.4 전국 노동자 총궐기 집회에 호시노재심투쟁도 함께 집결해 싸웁시다. 그리고 11.23 호시노재심 전국집회를 예전에 없었던 규모인 대집회로 만듭시다.

## 무죄를 증명하는 보충서

### 증거개시가 없는 기각은 위헌이다

9월 28일 호시노 후미야키(星野 文昭)씨와 재심변호단은 토쿄고등재판소 제 12 형사부에 신증거 9점과 함께 "이의신청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년 3월 30일의 제 2차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철저히 분쇄하는 전면적인 반론입니다. 보충서는 토쿄고등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결정이었던 것을 탄핵했습니다. 더욱해서 증거개시도 하지 않은채 기각결정을 강행한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관 측과 피고인 변호인 측과의 증거 수집능력에는 결정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수속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증거개시제도는 그래서 있습니다. 헌법 31 조는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으면 그생명 이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또는 그 밖의 형벌에 처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개시가 없는 기각결정은 공정한 수속없이 호시노씨에게 무기징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시노씨는 무죄를 호소해 38년간이나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안에야 말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재심제도가 무고한 사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최대의 인권문제라고 한다면 재판소는 검사에게 모든증거를 개시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변호단이 개시를 청구한 증거는 상세한 현인상황이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보고서"와 현장 목격자의 "홍술조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구타자와 호시노씨의 동일성 이라는 쟁점에 직접 관련하는 것이라 반드시 개시되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개시를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각결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뒷줄 왼쪽으로 부터 후지타 죠지(藤田 城治)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 이와이 마코토(岩井 信)와쿠타 오사무(和久田 修)각각 변호인앞줄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씨 호시노 타카오(星野 蒼夫)씨 (보충서 제출날 재판소에서)

## 심리학적감정의 활용은 불가결하다

"보충서"는 기각결정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별도게제.목차참조) 여기서는 "이츠쿠시마(巖島)감정서"를 부정한 "결정"의 잘못을 오늘 사법의 자리에서도 목격증거의 심리학적 분석의 중요성이 지적받고 있는점에 한정해서 봐 보겠습니다. 2004년 4월 9일의 오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판결은 "범인식별 홍술의 신용성을 둘러싸고는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등을 시조로 하는 인지심리학의 연구성과에도 눈부신 진전을 인정받는다" "목격자의 초기홍술이 지극히 중요하다라는 등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재판소의 부속기관인 사법연수소가 편집한 『범인 식별홍술의 신용성』에서도 "심리학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경청할 만하다"며 심리학적감정의 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각결정"은 kr 홍술의 신용성을 구체적인 실험과 심리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탄핵한 "이츠쿠시마(巖島)감정서"를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며 미리 파탄을 각인 시키는 것입니다. 이의심의의 싸움과 함께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으로서 전력을 다해 분쇄합시다.

### 이의신청 보충서.목차

- 제 1 첫마디
- 제 2 증거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헌법 31 조.37 조에 위반한다
- 제 3 kr 홍술은 신용할 수 없다
- 제 4 진짜 "범인"을 가르킬 가능성이 높은 신증거
- 제 5 범행후에 촬영된 청구인이 쥐고있는 철파이프에 구타한 흔적이 없다
- 제 6 청구인이 본건의 교차로의 중앙부근에 있었던것
- 제 7 청구인이 본건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시간
- 제 8 원 결정의 심리학 감정에 대한 판사의 잘못?
- 제 9 맺음말 원판결 결정의 잘못과 증거개시의 필요성

### 토쿠시마 면회일기 26 번째의 결혼 기념일

## "이제 해나갈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부터 확신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



9월 17일 26 번째의 결혼기념일은 휴일이라 면회는 못했지만

나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토쿠시마로

향했다. 호텔에서 니혼슈(日本酒)를 마시며 후미아키와의 대화를 상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좋았다. 기다리고 있던 상쾌한 후미아키와 만날 수 있었다. "잘지냈어?" "활기차게 잘지냈어" 새로운 시를 3편 낭독했더니 후미아키는 "3개다 아키코의 마음에 다른것 같아서 좋은것 같아. 특히 『어머니의 등에』가 인상적이었어"라고 말했다. "마츠무로(松室)시오리씨로 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키코의 시를 그다음부터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마지막 부분은 아키코의 나에 대한 마음일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겸허하지만 굴직한 부분이 있고 착실한 사람이네. 우치다 테루마사(内田 晶理)군에게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키코가 부러워"라는 후미아키.

"여기서 빼앗기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것을 하고 있다. 이 1~2개월 사이에 이제 무기징역과 싸워갈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마음속 깊은곳에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다

19일 이틀째의 면회. 후미아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면회에 임했다. "무기징역공격과 싸울때에 필요한 것을 획득하지 못했다. 획득하려고 칠전팔도했다. 중압에 대응하지 못하고 구금증(拘禁症)에 걸리기도 했다. 『이제 해나갈 수 있다』 물건을 얻을 수 있게되어 지금까지의 쫓기는 듯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없어져 모든 것에 여유를 가지고 마주볼 수 있게되었다. 지금까지 마주볼 수 없었던 것과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아키코가 같이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야. 나의 생각으로서는 세상일도 호시노탄압도 분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진심으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적의 정체를 보다 명백하게 할 수 있게되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용서하지 않는것 세상을 뿌리부터 바꾼다 단결한 힘으로 세상을 바꿔간다고 하는 것이 애매함 없이 깊어지고 강해졌다. 『이제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속에서 아키코와 나의 모든것을 **해방시켜** 아키코의 소중함과 의미를 재확인 할 수가 있었다.

### 커다란 한발자국을 밟은 기념일

20일 삼일째의 면회. "감옥의 벽이 있어 빼앗기고 있다. 밖에서 당연한듯이 서로 끌리거나 가슴이 설레이거나 할 수가 없다 새로운 기분으로 아키코와 같이 살아간다. 소중하게 마주보며 만들어가고 싶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애인 크라라가 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졌어도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을 잡아준 것이 아키코였다. 아키코의 인간적 훌륭함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곤란한 곳에 굳이 몸을 두고 싸운다. 그안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유대감 애정을 실증내지도 게을리 하지않고 키워왔다. 아키코가 그런 선택을 해줬다. 그중에 아키코가 본래 가지고있는 훌륭함이 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양에서 질로 바뀌어서 이 지평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1~2개월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철 미토(水戸)와 치바(千葉)동력차 노동조합과의 교류가 있었다. 나카야마(仲山)논문을 읽고 70년의 싸움과 지금의 싸움을 같은 싸움으로 인식해 그안에 호시노씨의 싸움이 들어있는 것을 후미아키는 기뻐하고 있었다. 폭력행위등처벌법 탄압으로 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의 학생들이 무죄판결을 쟁취해 후미아키에게 무죄라는 계주봉을 건내준것과 우치다(内田)군 마츠무로(松室)양의 결혼파티에서 내가 두사람을 위해 시를 지어 낭독했던 것등 후미아키가

젊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있는것이 전해진것도 후미아키에게 있어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후미아키와 함께 걸어온 26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것 후미아키와 함께 살아온 내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내가 후미아키와 함께 사는것으로 인생을 빼앗기는 고통을 느껴온 후미아키에게 있어서 "제일좋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빼앗긴 모든것을 되찾는 중심으로서 자신을 가지고 후미아키와 내가 서서 커다란 한발자국을 내딛은 기념일 이었다.